



현·장·중·계

앙케이트로 보는 농약 이미지

‘농약 안전성’ 이해 큰 평화 하나 얻은 듯

‘안전성을 확신·잔류농약에 대한 불안 없어짐’ 등 효과 크고 길 듯

-홍보부-

한 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홍보 역량을 소비자 중심에 모으기로 한 가운데 올해로 3년째 도심지 여론 주도층에 대한 농약안전성 알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작물보호협회는 최근 들어 농약 및 국내 농산물 안전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중 농약잔류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도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핵심 여론 주도층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지난 3월 5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실시하는 ‘출장요리 강좌’에 참여한데 이어 지난 4월 5일과 6일 이들 동안은 한국방송작가협

회 회원 25명을 초청, 농약 개발과정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제고하는 「농약안전성 세미나」를 갖고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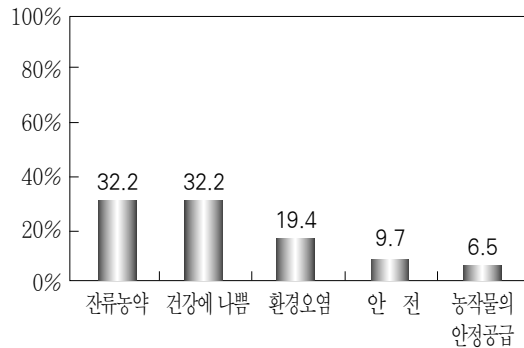
(주)동부한농 구미공장 회의실에서 개최된 첫날 세미나에서 경북대 김장익 교수는 강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오류와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개발과정,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특히 불특정 다수인들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방송작가들의 올바른 역할과 이해를 당부했다. 또 세미나 후에는 품질보증팀 김

태영 부장의 안내로 최신 자동화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제조환경 및 생산현장 종사자들의 건강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튿날인 6일에는 동부한농 대전 농업기술연 구소를 방문, 선진 연구시설을 견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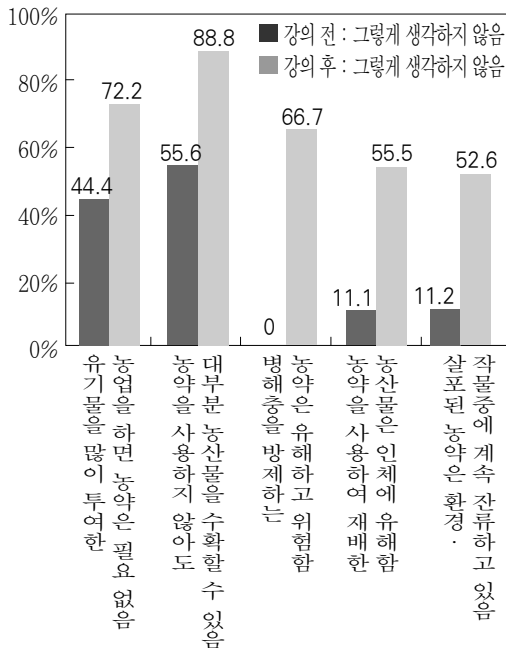
여기서는 지난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가 진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초청, 농약안전성 세미나 직전 및 제조공장 견학직후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결과를 통해 방송작가들이 말 하는 농약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본다.

■ 농약하면 떠오르는 것 ■

이날 농약 및 우리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강 의를 실시하기 전 농약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은 예상대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 나 세미나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농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참가자들은 「잔류농 약」 「건강에 나쁨」 「환경오염」 등을 꼽아 부정적 인식이 무려 83.8%에 이르렀으며 「안전」 「농작 물의 안정공급」은 16.2%에 머물렀다.



■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



강의 전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농약의 필요성」이나 「수확에 없 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상보다는 「농약으로 재배한 채소는 인체에 유해 함」,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은 유해하 고 위험」, 「살포된 농약은 환경이나 작물 중에 계속 잔류됨」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의 후에는 인 식의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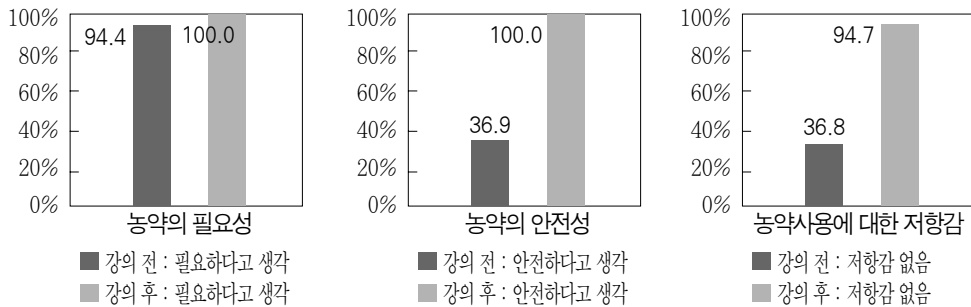


■ 농약사용에 대해 부정적 이유 ■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강의 전 참가자의 57.9%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안전성이 불안하기 때문」이 55.6%로 가장 많았고 「자연적으로 재배된 것이 좋기 때문」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 각각 16.6%와 22.2%, 「특별한 이유 없이 감각적으로 싫기 때문」이 5.6%로 나타나 역시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의 후에는 5.3%만이 「그래도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인식의 변화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 농약의 필요성 · 안전성, 농약사용에 대한 저항감 ■

세미나 참가자의 농약에 대한 이해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특히, 농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의 전 · 후에 무관하게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나 특히 강의 후에는 100%에 이를 만큼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강의 전 36.9%에서 강의 후에는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농약사용에 대한 저항감은 강의전 36.8%에서 강의 후에는 94.7%가 없어졌다고 답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불안 · 저항감 불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 ■

강의 후 참가자들은, 농약에 대한 불안감이나 저항감 불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반복시험을 통해 합격한 것만 등록」 「제초제는 농업노동의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공헌」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충이나 병 때문에 대부분 수확할 수 없음」 「등록 농약보다도 채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자기방어를 위한 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농약에는 발암성이 인정되지 않음」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미량의 농약은 워낙 간에서 분해되어 인체에 남지 않음」 「등록 농약은 사용방법을 지켜서 사용하는 한 안전」 순으로 대답했다.

■ 세미나 및 공장견학 후의 의식 · 행동변화 ■

농약 세미나 및 제조시설 견학후의 의식변화는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약의 안전성을 이해하고 나니 세상의 큰 평화 하나가 안기는 것 같음」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이 없어짐」 또는 「무지와 선입견으로만 인식했던 것을 자료와 강의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음」 「농약의 효율성을 인정하게 되었음」 「독성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맹독성이라 생각했는데 대부분 저독성이라니 안심」 등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강의를 들으면 긍정적이 될 수밖에」라는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도 있었다. 개선점으로는 「방송작가 외에도 기자 또는 대중매체 관계자들에게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여유 있는 질문 · 토론시간이 요구됨」 등의 의견이 있었다. 